



‘스페인 전 국민이 사랑한 붉은 소의 심장을 담은 와인’

상그레 데 토로 레제르바

SANGRE DE TORO RESERVA

지역	스페인) 까탈루냐		
포도품종	그르나슈 시라 까리냥		
알코올	14%	용량	750ml
시음 적정 온도	14-16℃		
테이스팅 노트	깊은 가넷 레드 컬러를 띠며, 야생 블랙베리 같은 검은 과실 아로마에 스모키한 뉴앙스와 그린 커피를 연상시키는 식물적인 향이 섞여 있다. 입 안에서는 따뜻하고 벨벳 같은 부드러운 미감을 선사하며, 마치 딸기잼을 떠올리게 하는 풍성한 여운을 남긴다.		
페어링 TIP	붉은 육류 / 흰 육류 / 익힌 해산물 / 붉은 살 생선 / 부드러운 치즈 / 단단한 치즈 / 훈제/염장 음식 / 밀가루 음식(피자, 파스타 외) / 디저트		



제품설명



상그레 데 토로는 이름 그대로 황소의 피'를 상징하며, 스페인의 강렬한 열정과 전통을 담아낸 스페인의 국민와인이다. 1954년 첫 빈티지 이후 토레스 가문의 대표적인 레드 와인으로 자리잡았으며, 지중해 토착 품종으로 빚어져 직관적이며 풍부한 풍미를 선사한다., 상그레 데 토로는 스페인에서 단순한 와인을 넘어 스페인의 문화를 상징하는 황소의 힘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아이코닉 와인이다.

와이너리



토레스 파밀리아 와이너리는 1870년 스페인 페네데스의 빌라프랑카 델 페네데스에서 설립되었지만, 그 뿌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. 다섯 세대를 이어오며 가족 와이너리의 정체성을 지켜왔고, 오늘날 우리의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. 브랜드 비즈니스는 1928년부터 시작되었으며, 오랜 세월을 걸쳐 발전시켜 온 증류 기술과 솔레라 숙성 방식은 깊이 있는 풍미와 균형감을 만들어낸다. Drinks International 2022에서 3년 연속 전 세계 판매 1위 & 트렌드 1위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, 오늘날 토레스 브랜드는 단순한 주정이 아닌,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담아내는 스페인 가문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.

※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,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※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